

시민의 삶과 인문학

글 · 주건일 theway@ymca.or.kr

내가 생각하는 인문학

나는 얼마 전 용산참사 희생자 추모미사에 다녀왔다. 용산역 부근 시위 현장 옆 모퉁이에 스티로폼을 깔고 20명 남짓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미사였다. 용산참사 242일 째. 아직도 법정에서는 당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했는지 시비를 가리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을 잊은 지 오래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부녀자들의 외침을 잊어버린 지 오래다. 그 현장 담벼락 한편에 걸려 있던 ‘너의 이웃은 누구냐?’ 라는 성서 구절만이 가끔씩 떠오를 뿐이다.

나 또한 용산참사를 잊은 지 오래였다. 오히려 궁금하다. 나와 그들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인문학과 시민교육은 그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나의 운동은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일까. 혹시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닐까. 물론 갑작스럽게 용산참사 현장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용산참사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삶의 문제, 즉 내 이웃의 문제, 동료의 문제, 친구의 문제 등에 아무런 관심과 상관이 없다면 올바른 삶을, 인문학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랫동안 인문학은 엘리트 그룹의 전유물처럼 기능해 왔다. 학자나 공무원, 운동가 등 사회에서 일정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문학은 상당히 중요한 학문이었다. 인간의 삶

과 사상의 집약인 역사, 철학, 문학 등을 통해 사회를 해석하는 능력은 어느 시대에서나 지도자의 핵심적인 역량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인문학은 웬지 현실과는 거리가 먼 고급 상식과 같이 인식돼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나 고급상식으로서의 문사철(文史哲) 학습이 인문학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인문학은 ‘인간이 처해진 조건에 대해 연구하고, 인간의 삶을 해석함으로써 그 근원과 본질적 가치가 인간의 삶 가운데 실현되도록 돕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내 주변 이웃과 마을, 사회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다. 인문학은 과거의 역사, 철학, 문학적 지식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인간의 삶에 대한 해석과 이해이며, 인간의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인문학이 삶의 문제에 대해 관심도 없고, 아무런 말도 못하고 침묵한다면 그것은 낡은 기록 일뿐 진정한 인문은 아니다.

진정한 인문학이 되려면 인문의 본질인 인간의 삶과 생활에 대한 관심과 성찰 그리고 연대와 소통이 필요하다. 지식으로서의 인문학이 아닌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상관있는 인문학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인문,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에게 화해가 되는 인문,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과 사랑을 나누는 인문, 소외받고 외면당한 자들의 이웃이 되는 인문. 느티나무와 같이 시원하고 포근하며 향기로운 안식처가 되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인문학과 시민교육의 역할이라고 본다.

요즘 인문학 열풍이다.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은 인간 삶과 괴리된 인문학의 위기였을 뿐 인문 자체의 위기는 아닌 듯하다. 최근 성행하는 다양한 인문학 강좌나 거리 노숙인과 교도소 등 소외된 계층까지 퍼져가는 인문학 열풍이 이를 증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오늘의 인문학 열풍도 단순한 문사철 교육에 머무른다면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인간과 괴리된 인문은 시민의 입장에서 더 이상 필요한 인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문학으로써 임계점(臨界點)을 넘어서야 한다. 고상한 온실초 같은 인문학이 아니라 생활과 삶의 현장에서 배우는 야생초 같은 그러나 따스한 삶의 향기가 묻어나는 삶으로서의 인문학을, 잔잔한 운동으로서의 인문학을 모색해야 한다.

그간의 인문이 인간 삶의 다양한 문제를 주도하기 위한 ‘소수의 소수에 의한 소수를 위한 인문학’으로 기능해 왔다면, 이제는 모든 인간이 삶을 향유하고 삶에 대해 성찰하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한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인문학’으로 계속해 시민의 삶 깊숙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진정한 인문학이 되려면 인문의 본질인 인간의 삶과 생활에 대한 관심과 성찰 그리고 연대와 소통이 필요하다. 지식으로서의 인문학이 아닌 인간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상관있는 인문학이 필요하다. 일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한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인문, 갈등하고 반목하는 사람들에게 화해가 되는 인문,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과 사랑을 나누는 인문, 소외받고 외면당한 자들의 이웃이 되는 인문. 느티나무와 같이 시원하고 포근하며 향기로운 안식처가 되는 것이야말로 현대사회의 인문학과 시민교육의 역할이라고 본다.

인간을 위한 인문학

삶과 운동 그리고 인문학은 끊임없이 한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고 한 사람의 삶에 초대 받고자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면 들어가 관계를 맺어야 한다. 인문학은 오늘 나의 이야기이자 너의 이야기이며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고 삶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문학은 문사철 교육을 넘어 용산참사와 같은 난해한 문제뿐만 아니라 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양극화, 실업대란, 의료, 복지 등)의 구체적인 실례들 그리고 한 사람의 삶과 끊임없이 관계 맺어야만 한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이 다양한 갈등의 현장과 문제의 소용돌이 속으로 자청해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막막하기만 하다. 다양한 집단과 개인의 문제에 개입해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들에게 문사철을 600권 정도 읽으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마련한 인문학 강좌에 참석해 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우리 이웃들이 삶 속에서 겪어 온 인문학은 것처럼 고상한 것들이 아니다.

당장 눈앞에서 동료가 죽어 나자빠지고, 공권력의 주인이면서도 공권력 앞에 꼬꾸라져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어제의 동료가 편이 갈려 싸워야 하는 이에게 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당장 오늘 점심을 걱정해야 하는 이에게 좋은 이야기가 있으니 들어 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직장을 잃고 다음 달에 내야하는 세금과 핸드폰 요금을 걱정해야 하는 젊은이에게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삶의 의미를 묻기에는 너무도 갑갑한 마음으로 한 점 여유도 없이 살아가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이런 것이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 과연 인문학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얼마 전 제조업체에 다니는 한 친구를 만났다. 회사에 부도가 나서 직장을 구하다가 궁여지책으로 다른 업체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했다. 그곳이 아니면 마땅한 대안도 없다. 이렇게 되다보니 빨리 정규직이 돼야 하는데 정규직 전환의 인사 고가를 잘 받기 위해 아침 7시까지 출근하고, 수당을 좀 더 받기 위해 밤 9시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게다가 주말에 쉬지 못하고 평일에 쉬다 보니 얼마 전부터 나가게 된 교회에도 나가지 못하고 친구들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형편이 되었다. 나는 희망을 놓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정이 곧 나아질 거라고, 나치 수용소와 같은 극한상황에서도 견뎌내 결국은 삶의 의미를 발견한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의 '삶의 의미 추구' 라는 가치에 대해 말했다. 그 친구는 그다지 위로를 받지 못하는 눈치였다.

인문학의 가치 있는 이야기와 진실한 조언이 작용하지 않는 것인가? 그랬다. 나는 대화에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제 3자를 끌어들었다. 그는 분명 나에게 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고 싶었으리라. 기록 역사와 화석화된 철학, 타인의 문학을 내 것인 양 이야기하기 바빠서(?) 오늘 지금 여기, 우리만의 역사, 우리만의 철학, 우리만의 문학을 생각지 못했던 내 자신의 한계를 절감했다.

이런 고민 가운데 며칠 뒤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했다. 그리고 근처 공원에서 만나기로 하고 맥주 두 캔을 샀다. 사실 나는 종교적인 소신으로 오래 전부터 입에 술을 대지 않아 왔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술이 필요했다. 비닐봉지 속에서 맥주를 꺼내들자 친구가 자못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곧 "이런 게 살아가는 즐거움이지" 라며 자조하듯 웃었다. 그날 우리는 충분히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위로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우리의 역사, 우리의 철학, 우리의 문화를 즉 우리만의 인문학을 공유했다.

물론 한 번의 만남을 통해 그 친구의 삶이 변한 것은 없다. 그러나 변한 것이 있다. 그가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힘듦과 고통을 나에게 털어놓게 되었다는 것,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나를 그의 삶에 초대해 주었다는 것만은 분명히 변했다.

변화는 쌍방의 관계이다. 나는 감히 인문학도 그리고 시민교육도 쌍방의 '관계' 라고 말하고 싶다. 그 관계는 좋은 구호, 멋들어진 이야기, 아름다운 미사여구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며 상대방을 받아들이고자 노력할 때 그 상대방이 자신의 삶에 나를 초대하면서 형성되는 관계라 하겠다. 그것은 벌이 꽃의 달콤한 냄새를 맡고 꽃을 알아보는 것처럼, 상대가 내 삶의 향기를 맡고 나를 알아보는 것과 같다.

인문학을 통한 운동이 어떤 제도나 법을 바꾸거나 시위 현장을 주도하거나 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문학은 문사철의 지식을 뛰어 넘어, 삶의 향기가 되어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사람의 친구요 이웃이 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이 아니라, 새로운 인문학, 즉 그들의 인문학, 우리의 인문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아래로 아래로……

인문학을 통한 운동이 어떤 제도나 법을 바꾸거나 시위 현장을 주도하거나 하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문학은 문사철의 지식을 뛰어 넘어, 삶의 향기가 되어 사람의 삶 속으로 들어가 사람의 친구요 이웃이 될 수는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인문학이 아니라, 새로운 인문학 즉 그들의 인문학, 우리의 인문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의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은 오늘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의 역사와 철학과 문학이 되어야 한다. 그들만의 눈높이에 맞춰서 역사를 쓰고 가치를 이야기하고 문화를 말하는 그것이어야 한다. 시민들이 고운 향기를 맡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의 향기로서의 ‘시민의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말하는 인문학 자체가 시민의 삶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

인문학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고, 가난도 부요도 없다. 인문학은 그저 삶 그 자체이다. 자기옹호나 자기보존이 아닌, 아래로 내려가는 운동(downward movement)으로서의 인문학이어야 한다. 근원과 본질에 대해 말만 하는 인문학이 밑바닥에서, 삶 한 가운데서 실천하는 인문학이 되어야 한다. 그것은 ‘높이에서 깊이로, 승리에서 패배로, 삶에서 죽음으로’ (칼 바르트, ‘교회교의학’ 4, 1) 가는 움직임이기 때문이다.